

80년대 언론통폐합과동

1) 언론사 통폐합의 특징

「자율결의」의 이름이건 「통폐합」의 이름이건 5·16후 세 차례의 언론정비과동이 있었다. 80년(11·4) 언론통폐합과동은 그 규모의 크기와 방법에 있어서 한국언론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혁명적 조치였다.

전국 63개사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언론매체 중 전체의 3분의 2선이 넘는 44개사가 통폐합 대상이었다. 이 과동이 있기 전인 7월 31일, 계엄하의 문화공보부는 사회정화라는 이름 밑에 주간 월간 계간 등 172개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했다. 취소된 정기간행물 중에는 「뿌리 깊은 나무」 「기자협회보」 「동화그라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도 들어있다. 취소된 정기간행물 중에는 정부측이 말하는 사이버언론에 들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이 5·16 직후의 언론정비와는 또 다른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80년 언론기관 통폐합의 특징은 70년대 초반부터 거론되던 △ 통신사의 통합과 단일화 △ 지방에서의 1도 1사 원칙 △ 신문과 방송의 경영분리 및 방송의 공영화 △ 중앙일간지의 정비·재편 등으로 간추려진다.

정치의 큰 변동과 언론의 정비는 늘 정비례의 꼴이었다. 단간제의 이름으로, 1도 1사의 이름으로, 이른바 사이버언론의 이름으로, 건전언론 자율정화 등의 이름으로

언론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만했다.

80년 7월 29일과 31일에 열린 신문협회·방송협회·통신협회의 세 협회 모임에서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 언론은 언제나 국익을 우선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국민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
- △ 정의와 도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건설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사회정화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언론도 이에 최선을 다한다.
- △ 국가보위, 사회정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론계 자체가 안고 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부조리와 비위를 조절하여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한다.
- △ 언론인의 교육을 제도화하여 언론인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이른바 언론인 자율정화 결의문이다. 결의문 발표 5일 뒤인 8월 2일부터 전국 모든 언론사에 해직이 단행되었다. 이 해직언론인 속에는 계엄검열 거부운동을 주도했던 記協 간부 전원과 記協 각 분회 간부들, 각 언론사의 결의문 초안작성자, 그리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편집국간부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

당국은 이 해직을 「정치유착」 「경제유착」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언론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해직조치로 언론계를 떠난 사람은 서울 359명, 지방 352명 모두 711명이었다.

2) 1973년의 제2차 언론통폐합

1973년 봄에 있었던 제2차 언론통폐합 파동을 간추려 본다. 이 해엔 중앙에서 유수

한 일간신문과 통신 그리고 경영이 부실한 언론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사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지방에서는 이미 전년도부터 추진되던 통합이 단행되었다.

이 해에 있었던 폐간과 통합의 실정은 다음과 같다.

- △ 한국경제일보 : 3월 28일 「운영난」을 이유로 문공부에 폐간신고.
- △ 동화통신 : 우리나라 3대 통신의 하나로 로이터, AP 등 우수한 외신과 계약을 맺어 왔던 동화통신은 3월 31일부터 휴간에 들어가 1개월 후인 4월 30일 정식폐간. 이유는 「재정난」이었다. 동화의 폐간으로 종합통신사는 동양과 합동으로 줄어들었다.
- △ 대한일보 : 김연준(金連俊)사장이 수재의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5월 15일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자진 폐간.
- △ 대전일보 중도일보 : 5월 25일 통합하여 충남일보로 개제, 충남의 단일신문이 되었다.
- △ 전북일보 전북매일 호남일보 : 6월 1일 3사가 통합하여 전북신문으로 단일화.
- △ 호남매일 : 목포에서 발간되다가 경영상 이유로 5월 30일 자진 폐간. 그러나 전남에는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2개사가 남게 되었다.
- △ 경기일보 경기매일 연합신문 : 인천과 수원에서 발간되던 이 3개 신문은 9월 1일부터 통합, 수원에 본사를 두고 경기신문으로 새로 발족.
- △ AK뉴스 : 주로 피처 기사를 제공해 오다가 6월 30일부터 폐간.

이리하여 1972년도에 대구에서 발행되던 일간지 2개가 폐간되는데 이어 1973년도에는 서울에 있던 일간지 2개와 통신 2개가 폐간되었고, 경기 충남 전북에서는 지방지의 통합으로 한 도에 하나의 일간지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와 충북 제주 도에는 1개의 일간지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부산 경북 전남에서만 2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는 셈이 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969년도부터 1971년까지 44개의 일간지가 발행된 것이 5·16

이후 최고 수준이었고, 72년도에는 42개로 줄어들었고, 73년도의 몇 개 일간지의 폐간과 지방사 통합으로 전국 일간지 수는 37개로 줄었다.

3) 1980년의 사회정세와 언론

80년(제3차) 언론통폐합에 관한 신문협회 방송협회 통신협회의 결의는 11월 14일 오후에 있었다. 그러나 통폐합 내용이 해당사에 전해진 것은 이틀 전인 11월 12일이 었다. 선통보 후결의의 꼴이 되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이 언론사에 알려진 것은 11월 13일 아침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회원 일동은 우리 언론이 지난 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키는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체계와 태세를 갖추도록 자기혁신을 스스로 단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 앞에 천명한다.

언론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기로써 민족성원의 번영 및 국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백히 배치되는 언론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하여 민주언론 창달, 국민언론 흥룡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우리나라에는 구미 각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문 방송 통신사가 난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이 각계 국민에게 본의 아닌 폐를 끼쳐 왔고, 사회적 적폐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며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언론 기업의 발전과 체질강화를 기한다.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되므로, 어느 개인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민족적 여론 조성을 저해하는 언론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문 방송 통신 등 각사가 서울과 지방에 저마다 주재기자를 두고 있는 전근대적 취재방식을 개선, 언론비위와 품위손상의 소지를 과감히 일소한다. 중앙지, 방송과 지방지가 각각 지방과 서울에 두고 있는 주재기자를 철수하여 구미 각국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역외뉴스를 통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기존 통신사와 우리 신문 방송협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내의 취재와 뉴스 공급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영향력 있는 새로운 통신을 조속한 시일 안에 설립한다.

1981년 1월부터 신문을 증면하여 산업사회의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언론인의 처우를 동시에 개선한다. 언론인의 직업 전문교육을 제도화하여 언론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민족독립, 민족자주의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자임해 온 한국언론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민족성원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 보호키 위해 윤리심의기능을 활성화한다.

이 엄청난 통폐합은 결으로는 한국신문협회나 한국방송협회의 임시총회 결의문(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정부는 홍보했다. 자기 방어에 강한 언론사가 이 결의 하나로 스스로 문을 닫든지 영업권을 남에게 넘겨준 결과가 되었다. 통폐합 작업과정에서 폐간 대상에 오른 신문 방송 통신의 일부 언론사 경영주들은 계엄령하의 당국에 불려가 통폐합에 대해 타의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80년의 주요 일지를 훑어보면 당시의 사회정세를 어림할 수 있다. △ 정부, 윤보선(尹潽善), 김대중(金大中)등 687명에 대한 복권조치(2.28) △ 사북사태 발생(4.21) △ 광주민주화운동(5.18) △ 국가보위비상대위 신설 (5.31) △ 국보위, 사회정화작업 숙정을 발표(7.9) △ 최규하(崔圭夏)대통령 하야(8.16) △ 전두환(全斗煥), 11대 대통령에 취임 (9.1) △ 정부, 언론기본법 공포(12.31).

언론통폐합 파동에 대해 시민들과 몇몇 신문들은 이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은 △ 언론의 획일화 또는 위축 △ 통폐합되는 언론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대책 △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영방

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이다.

동아일보는 11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언론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폐합된 매체의 종사자들은 원칙적으로 통합한 회사에서 흡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흡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 직장을 확보해 줘야 할 줄 안다.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양성한 인재의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안정이나 국민총화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통폐합이 언론의 획일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비판해 온 신문의 획일화 현상은 신문들도 바라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근본부터 제거하는 정치적인 배려를 요망하고 싶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론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요청되고 있다. 민주정치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도의 획일성과 관련해서 독자나 시청자들이 한국의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품고 있는 불신감이 더 이상 깊어지서는 안될 줄 안다. 국민이 언론기관의 보도를 믿지 않을 때 유언비어만이 횡행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셋째, 언론기관 특히 방송은 앞으로 공익 기능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짐작하거나 금후 국영이나 공영 방송은 최소한 BBC와 같은 공정한 보도와 알맹이 있는 교양프로를 제작하도록 노력해서 선택이 좁아진 시청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 바란다. 넷째, 언론구조의 일대 개편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언론기관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을 넓혀 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통폐합 파동에 대해 어느 변호사는 짧게 평했다.

언론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언론기관의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공익과 정의를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주고 또 사회 각층이 이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합의가 우리 사회 속에 토착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폐합된 신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신문의 매우 자제된 심정의 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 신문이 마지막 국제신문입니다. ... 독자여 안녕, 창작 33년 2개월 25일 지령 제 1099호로 종간, 파란만장의 시대에 역사의 기록자임을 확신하며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숨쉬며 온 전사원 고별인사. 국제신문은 없어져도 독자의 성원은 영원히 간직, 그동안의 격려처럼 길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제신문)

매일 친근하게 대하던 신문이 갑작스레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아의 종사자와 또 이 신문을 읽던 독자 여러분에게 더 말과 붓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서로가 느낌을 억제하고 좋은 회고로서 이 신문이 그려왔던 긴 지령을 여러분이 회상하실 수 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 더 바라고 위안될 것이 없습니다. (신아일보)

5백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고별합니다. 국가·민족·사회와 정의·민주 위해 최선의 봉사를 다했습니다. 정열을 내뿜던 윤전기여 안녕. (영남일보)

4) 고별방송에 대한 정부의 제한지침

신협(新協)과 방협(放協)이 내린 결의(11·14)에 따라 11월 25일자로 기독교방송은 뉴스보도를 중단했고, 국제신문, 영남일보, 경남일보 등이 종간되었다. 경남일보(진주)는 우리나라의 지방지로서는 가장 나이테가 오래다.

11월 30일에는 동양TV와 동양라디오, 동아방송을 비롯, 전국의 민간 상업방송들이 모두 KBS에 통합되거나 문화방송에 흡수되었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30일

자로 중간호를 내고, 12월 1일자부터 광주일보로 통합 발행하게 되었다.

11월 30일 12시를 기해 동양방송과 그 제휴국들, 그리고 동아방송이 상업방송으로서 마지막 방송을 했다. 동양TV는 동양방송 사기(社旗)의 하강식을 임원 및 사원들이 지켜보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동아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 드린 DBS 동아방송을 들으셨습니다. … 그동안 동아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동아방송입니다. HLKJ」라는 엔딩멘트로 고별방송을 했다.

기독교방송 고별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울음을 터뜨린 사건 때문에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에는 고별방송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다. TV가 있는 동양방송에는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11월 26일 하달됐다.

<고별방송에 대한 지침>

고별방송의 편성

- 고별방송은 방송종료일(11·30)에 한하고 그 이전 편성은 일체 불허함.
- 고별방송은 기존 프로그램에 단순한 고별인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독립 프로로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녹음·녹화하여야 함.

고별특집프로의 내용

만약 고별특집프로를 제작·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은 다음 사항의 것으로 국한함.

- 단순한 고별인사의 내용.
- 과거 방송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소개.
- 출연자들이 잊지못할 밝은 화제.
- 감상적 내용을 배제한 연기 또는 분위기.

*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과 감정적 표현 또는 방송종료에 관한 부정적 표현 금지.

사전검열

모든 고별멘트, 또는 고별프로의 녹음 녹화용 대본 원고진행표(큐시트)는 필히 사전에 계엄사의 검열을 받아야 함.

애드립(즉흥대사)의 금지

진행자 및 출연자는 검열받은 원고 대본 외의 일체의 애드립을 불허함.

5) 통폐합 언론사의 실태

80년 11월 통폐합으로 조정된 언론사의 사정은 다음과 같으며, 통폐합 작업은 보름만에 마무리되었다.

(1) 신문

7개 종합일간지 중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중앙 종합지는 6개로 줄어들었다. 종래의 석간이었던 서울신문이 조간으로 바뀜으로써 조선일보·한국일보와 함께 3개의 조간지로 되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3개의 석간지로 개편되었다.

4개 경제전문지 서울경제, 일간내외경제, 매일경제, 현대경제 중 서울경제와 일간내외경제가 각각 자매지인 한국일보와 코리아헤럴드에 흡수되었다. 이로써 경제전문지는 매일경제(석간)와 현대경제(조간) 2개지만 남게 되었다. 현대경제는 11월 26일자로 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게 되었다.

(2) 지방신문

1도1지의 원칙에 따라 이때까지 1개도에서 2개지씩 발행되던 경북 대구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매일신문이 영남일보를 흡수·통합,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改題) 발행하게 되었다. 부산의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흡수·통합,

제호를 부산일보로 바꾸어 발행하게 되었다.

경남 진주의 경남일보가 마산의 경남매일신문에 흡수·통합, 경남신문으로 개제(改題)발행하게 되었다.

전남 광주의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두 신문이 발전적으로 해체, 광주일보란 새 제호(題號)로 발행하게 되었다.

(3) 통신

통신부문의 통폐합은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을 해체하고 두 사(社)를 주축으로 연합통신을 설립했다. 연합통신은 동양·합동통신이 49%의 자본을 냈고 신문·방송 두 협회산하 회원사가 51%의 자본을 내서 주식회사로 발족시켰다.

특수통신인 시사·경제·산업의 3통신사가 11월 25일자로 종간, 신설 통신사에 흡수되었다. 무역통신과 산업통신은 각각 통신보도 기능을 없애고 당해 무역협회와 건설협회의 기관지로서의 기능만 하게 했다.

연합통신이 단일통신으로 되면서 일간종합지의 지방주재기자는 철수하게 되었다. 단일통신에 지방뉴스를 의존하게 된 일간종합지들은 제공되는 획일적 일방적 뉴스만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어난 희비극은 적지 않았다. 단일통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종합일간지들은 자주적인 지방뉴스 창구를 잃은 셈이다. 단일통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신문, 방송은 개(犬)가 저수지에 빠진 주인집 소년을 구했다는 니, 또는 6순이 넘는 여인이 잉태를 했다는 등 오보를 하여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4) 방송

종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2원적이었던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시켜 KBS와 MBC 네트워크로 재편성했다.

이를테면, TBC(동양방송)의 TV와 라디오는 KBS에서 인수, KBS 제2TV와 제3방송이 되었다. TBC FM은 제2FM으로 재편되었다.

KBS는 DBS(동아방송)를 인수, KBS 제4방송 라디오서울로 개칭(改稱), 종전 TBC와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수도권 생활뉴스와 오락방송을 전담케 했다.

KBS는 또 TBC의 네트워크이며 별도 법인체인 서해방송과 전일방송도 인수, KBS군산방송 KBS광주제2방송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

종교방송인 CBS(기독교방송)는 보도 광고 기능을 없애고 복음방송만 하게 했다. CBS의 본사를 포함한 4개 지방국 보도요원은 모두 KBS로 넘겼다.

MBC(문화방송)는 각기 독립 법인으로서는 프로그램 제휴를 맺고 있던 지방의 21개 MBC계 방송사로부터 각각 51%의 주식을 옮겨받아 이를 MBC의 지방방송망으로 계열화했다. 그리고 MBC의 주식 65%를 KBS가 인수했고, 5·16재단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사단법인 경향신문이란 별도 법인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언론통폐합 파동으로 자율적이건 타율적이건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이 적지 않다. 통폐합 때 신문사를 떠난 어느 기자는 「부모가 죽은 것보다도 더 침통했다」고 회고했다. 언론통폐합 파동으로 미아신세가 된 기자들의 어려움은 응달에 가리워진 채 한 시대의 제물이 되었다.

80년대의 무더기 기자해직과 언론통폐합 조치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던 것인가는 여러모로 드러났다. 통폐합 후의 한국언론은 그해(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받는 수난의 시대를 맞이했었다. 시종일관 비난받아 오던 언론기본법은 1987년 6월 29일, 소위 6·29 민주화선언을 계기로 폐지됐다.

〈표 3〉 1980년도에 통합·조정된 언론기관

구분	회사명	발행인	창간일	통합·조정 내용
중앙지	신아일보	張基鳳	65. 5. 6	경향신문에 흡수 통합
	서울신문	文胎甲	45.11.22	석간에서 조간으로 바뀜
	경향신문	李振羲	46.10. 6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에서 신문과 방송을 분리
경제지	서울경제	張康在	60. 8. 1	한국일보에 흡수 통합
	내외경제	金泰東	73.12.21	코리아 헤럴드에 흡수 통합
	현대경제	元容奭	64.10.12	「한국경제신문」으로 개제
지방지	국제신문	鄭淳珉	47. 9. 1	부산일보에 흡수 통합
	부산일보	權五賢	46.10.11	부산일보를 「釜山日報」로 개제
	영남일보	李在弼	45.10.11	매일신문에 흡수 통합
	매일신문	金達出	50.10. 1	매일신문을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
	경남일보	金閔陽	60.10.15	경남매일에 흡수 통합
	경남매일	金富顯	46. 3. 1	「경남신문」으로 개제
	전남일보	金宗太	52. 2.10	전남매일과 통합, 「光州日報」 창설
	전남매일	沈相宇	60. 9.26	「전남일보」와 통합, 「光州日報」를 창설
통신사	동양통신	金聖鎭	55. 8.20	양사를 발전적으로 해체, 이를 중심으로 연합
	합동통신	朴容昆	45.12.20	통신을 신설
	시사통신	金喜鍾	51. 5.21	신설 연합통신에 흡수
	經濟통신	蔡永默	46.11. 1	''
	産業통신	嚴子卿	69.11. 1	''
	貿易통신	金元基	49. 8.16	무역협회 회원지로 변경
방송사	동양방송	洪斗杓	64. 5. 9	KBS에 흡수 통합
	동아방송	崔 皓	63. 4.25	''
	전일방송	金宗太	71. 4.24	''
	서해방송	文永培	69.10. 2	''
	대구FM	李茂一	71. 4.25	''
	기독교방송	金觀錫	54.12.15	복음방송만 전담
	MBC	지방 21개사(부산문화, 부산 문화TV,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청주, 충주, 대전, 대구, 포항, 울산, 마산, 마산TV, 진주, 전주, 광주, 목포, 여수, 안동, 남양)의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MBC(서울)가 인수하여 계열화		